

11/13/16

설교 제목: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고린도전서 13:1-13

- (고전 13:1)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가 되고 **절판주** 딘전 1:5
- (고전 13:2)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 (고전 13:3)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 (고전 13: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 (고전 13:5)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 (고전 13:6)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 (고전 13: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 (고전 13:8)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절판주** 고전 13:2
- (고전 13:9)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 (고전 13:10)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절판주** 사 60:19, 렘 31:34, 합 2:14
- (고전 13:11)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 (고전 13:12)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 (고전 13:13)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나니아 연대기'를 쓴 소설가이자 20 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apologetics)로 불리는 C.S 루이스(Clive Staples Lewis, 1898-1963)는 『네 가지 사랑』(The Four Loves)이란 책에서 사랑을 에로스(eros), 스토르게(storge), 필레아(philia), 아가페(agape), 이렇게 네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째, 에로스(eros)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에로스의 사랑을 육체적인 사랑이라며 천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남자와 여자 간의 기본적인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성에게 사랑받고 싶어하고 또 이성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많은 노래와 문학, 예술 작품이 이 남녀 간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의 기쁨이 있고 사랑의 슬픔이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등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으므로 결혼이 가능하고 가정이 탄생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 속에서 자신들을 닮은 자녀들을 낳아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독점하고 싶은 사랑입니다.

만일 이 사랑에 제 삼자가 끼어들면 거기에 질투가 생기고 비극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는 에로스적인 면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성도는 신부로 묘사된 곳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한분만을 사랑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상을 사랑하고 그 앞에 절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둘째, 스토르게(storge)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자기 자식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가 예쁘고 사랑스러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렇게 스토르계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 된 우리를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눅 15 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는 자식에게 배반당하지만 그 아들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돌아오면 뜨겁게 영접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필레아(philia)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친구간의 사랑, 곧 우정을 말합니다.

우정은 어떻게 보면 쉽게 형성되고 쉽게 깨지는 것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순수한 우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을 가며 한 세상 사는 동안 서로를 위로하고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렇게 필레아적인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 삼으시고, 하나님 역사의 동역자로 영접하셨습니다.

(요 1:13-15)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런 필레아의 사랑은 성경에서 종종 아가페의 사랑과 구분 없이 쓰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은 그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넷째, 아가페(agape)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에로스적인 요소와 스토르계적인 요소와 필레아적인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무조건적이며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질투하기까지 절대적으로 사랑하십니다(에로스).

하나님은 혹시 어머니가 태에서 나온 자식을 잊을지언정 나는 결코 너희를 잊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스토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늘 함께 하시며 사랑하십니다(필레아).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아가페).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만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랑장 본문은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부분은 1-3 절로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는 헛된 것임을 말하고 둘째 부분은 4-7 절로 사랑의 본질에 대해 셋째 부분은 8-13 절로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특별히 외적으로 현저히 드러나는 방언, 예언 같은 은사들에 열광하며 예배 때 자신이 받은 은사들을 과시하기를 즐겼으며 그로 인해 고린도 교회 예배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되었고 교인들끼리는 위화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 장에서부터 14 장까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가운데 13 장에 뜬금없이 사랑 타령을 한 것입니다.

즉 12 장에는 전반적인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고 14 장 고린도 교인들이 특별히 좋아했던 은사인 예언, 방언, 지식을 언급하기 전 그 은사들을 바로 알고 옳게 사용하라고 사랑을 말한 것입니다.

1. 먼저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는 헛된 것이다를 말한 첫 부분을 보겠습니다.

(고전 13:1)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가 되고

Already, not yet!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을 천사들의 언어로 생각했고 자신들이 방언을 함으로써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예배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들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팽과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팽과리는 당시 고린도 지역 이방 신전에서 광란의 의식의 도구로 쓰였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적용함으로써 사랑없이 방언들만 해대는 것은 그들이 과거 이방신을 섬겼을 때 했던 이방 종교의 종교 의식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전 13:2)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여기서 비밀과 지식은 계시로 얻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구원을 얻기위해 있어야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주를 신뢰하여 이적을 행하고 보는 은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에 대한 비밀들과 지식들을 안다 할지라도, 또 산을 움직일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전 13:3)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당시나 지금이나 부자들이 명예를 얻거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한턱을 내는 일은 흔히 있었습니다.

또한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 주는 일도 혹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런 종류의 일들을 할지라도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었고 다른 데 있었다면 한 행동과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2. 사도 바울은 이어서 사랑의 속성을 구체적으로 사랑은 무엇을 하는 것이며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인지 열 다섯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말합니다.

(고전 13: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전 13:5)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고전 13:6)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고전 13: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는 여기서 특별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에 대해 같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오래 참고' '온유하며'라는 단어가 너무 강하게 머리 속에 자리잡고 있어서 정의를 내세우고 그 일의 옳고 그름의 여부를 따지고 진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는 것은 어쩐지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히려 불의를 거부하고 진리 편에 서서 투쟁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3.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사랑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사랑과 고린도 교인들이 특별히 좋아했고 교회 내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은사들인 예언 방언 지식의 은사들을 짚어 보면서 예언 방언 지식의 은사들이 물론 좋은 은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더 이상은 필요가 없게 되고 다 폐기되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대조해서 사랑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고전 13:9)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고전 13:10)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고전 13:11)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전 13:12)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구원에 대해 예언 방언 지식을 통해 일부분만 알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직접 면전에서 보게 되니 예언 방언 지식을 통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므로 더 이상 예언 방언 지식이 필요없게 되어 다 폐기된다는 것입니다.

(고전 13:13)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은 예언 방언 지식은 없어져도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하면서도 그중에 가장 으뜸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끝을 맺는데 그 이유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믿음과 소망을 품도록 한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크리스찬이란 말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도와 주셔서 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